

리버스: 1999 기반 캐릭터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상세설명(커미션용 초안)

목차

1. 세계관 및 캐릭터 개요
2. 외모
3. 의상
4. 기타

1. 세계관 및 캐릭터 개요

스토리라인은 수집형 RPG <리버스: 1999> 세계관에 기반한 자작 캐릭터입니다. <리버스: 1999>는 마법(게임 내부에서는 '마도학'이라고 부릅니다)이 실재하는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종족인 '마도학자'와 그렇지 않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모종의 사유로 한 시대가 사라지고 휩쓸린 뒤 다른 시대에 도착하게 되는 '폭풍우'라는 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게임은 주인공 '버틴'이 폭풍우를 해쳐나가는 것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1999> 세계관에는 '노른'(복수형: 노르니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운명을 관할하는 존재들로, 고유한 외모를 띄고 있으며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는 등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에서 서사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만큼, 노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작성한 아래 설정 연구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postype.com/@altaironthelake/series/1374851>

스토리라인은 위에서 설명했던 노른입니다. 따라서 스토리라인은 노른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른이 가지는 고유한 외모의 형태를 스토리라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와 관련해서는 본문에 상세히 기재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은 소설 작가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가끔 수필 등 소설이 아닌 글을 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집을 두고 있지만 여행을 떠나는 일이 많아 1년 중 집에 있는 날이 더 적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주로 랩탑 컴퓨터로 글을 쓰며, 집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글을 씁니다. 영감이 갑자기 떠오를 때면 손에 들고 있는 노트에 필기하고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모, 의상 등 각 문단에 상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정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외모

스토리라인은 기본적으로 중성적인 외모를 띄고 있습니다. 일명 ‘강아지상’이면서 동글동글한 얼굴입니다. 머리카락은 옥색(#B7D3CC)이며, 평균에 가깝고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머리카락 술은 평균인 편입니다. 머리 스타일은 아래 레퍼런스 이미지와 비슷한 ‘리프컷’입니다.



▲레퍼런스 1. 리프컷 형태의 머리 스타일

눈동자색은 #83B3A6 이며, 아래 레퍼런스와 같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알이 크고 동글동글한 형태면 좋겠습니다. 수염은 전혀 나 있지 않습니다.



▲레퍼런스 2. 검고 동그라며 얇은 테의 안경

스토리라인은 키가 대략 190 cm인 장신이며, 슬렌더형 체형에 가깝습니다. 길쭉하다는 느낌이 잘 묘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외모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진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는 얼굴이며, 피부색은 밝은 편입니다. 눈썹은 보통입니다.

3. 의상

스토리라인이 중성적인 외형을 가진 것처럼, 의상 또한 중성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래와 같은 느낌의 의상입니다.



▲레퍼런스 3. 의상의 추구 디자인

가디건은 갈색이되, 아래와 같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입니다. 질감이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소재는 부드러운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주머니가 좀 있길 희망합니다. 가디건은 바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느낌을 원합니다. 가디건의 가슴 부분에는 펼쳐진 책 모양의 बै지, 펜 모양의 बै지, 커피잔 모양의 बै지 총 3개의 बै지가 달려 있습니다.



▲레퍼런스 4. 가디건

바지는 검은색 청바지입니다. 바지 벨트는 티셔츠와 가디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여 아래 레퍼런스를 첨부합니다.



▲레퍼런스 5. 검은 청바지

신발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나, 적당한 캔버스화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레퍼런스의 색상은 검은색이지만, 원하신다면 다른 색으로 맞춰 주셔도 됩니다. 아래 레퍼런스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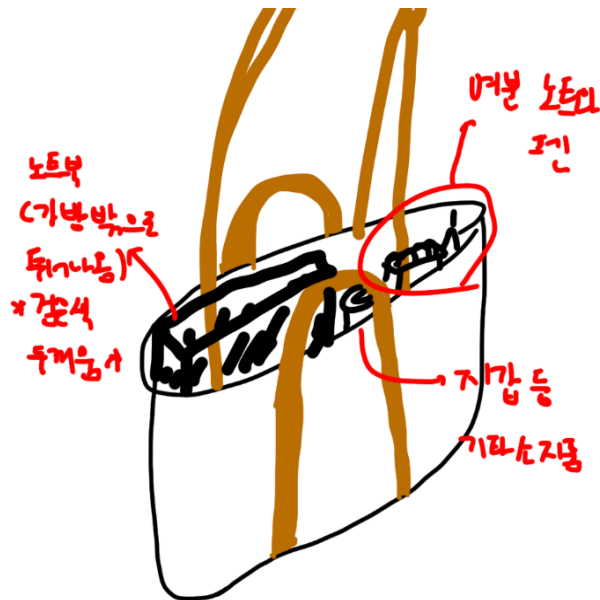


▲레퍼런스 6. 신발

특히 스토리라인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 안에는 노트북(정확한 모델은 IBM ThinkPad 600E지만, 정확한 고종은 지켜주실 필요 없습니다. ‘두껍고 크다’라는 느낌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분의 노트와 펜, 지갑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가방 밖으로 나오는 것은 노트북이며, 그 외의 물건은 가방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즉, 노트북보다 가방이 작습니다). 가방은 아래 디자인 같은 느낌입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깨에 매는 긴 끈이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7. 가방



▲레퍼런스 8. 가방 내부 배치. 휘갈겨서 글씨가 나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라인의 설정 중 하나는 항상 손에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노트와 펜은 여러가지 이유(다 쓰거나, 고장나거나, 잃어버리거나)로 종종 바뀌기에 디자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디자인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남겨 둡니다.



▲레퍼런스 9. 노트와 펜

4. 참고 그림

아래는 지인이 나나곰쿠키2로 구현해 주신 SD 스탠딩입니다.



▲ 레퍼런스 10. 나나곰쿠키2 구현

아래는 LD 스탠딩입니다.



▲레퍼런스 12. LD 스탠딩